더불어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보 도 자 료

단장: 서영교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 국수본 내에서 기자회견 중인 서영교 단장과 전용기 수석대변인, 염태영·송재봉 본부장, 김승원·양부남·이성윤·이연희·김기표 위원

27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였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게이트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및 국수본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끝)

● 서영교 단장 모두발언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수사본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독립적 기관입니다. 독립적으로 사회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게 국가수사본부에 힘도 실어 주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새빨간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이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3년을 구형했던 사람이 검사 윤석열이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박근혜를 철저히, 낱낱이 다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압니다. 공천에 개입하는 것이, 그것도 대통령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범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깊숙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윤상현한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야기하겠다’ 라는 육성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던 겁니까? 저희는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윤상현•김건희의 공천개입을 수사해달라고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이 드러났습니다. 끝내 김상민 검사를 공천시켜달라고 김영선에게 요구하는 내용, 장관 자리와 공기업 사장까지 거래하면서 대화했던 내용들도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된겁니까?

다시 한번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때이니, 경찰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제 역할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

김건희 육성, 윤석열 육성, 공천개입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 나왔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김영선을 밀라고 한 최초로 공개된 김건희의 공천개입 육성,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이 해줘라, 이랬다고.”
“하여튼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한
윤석열의 충격적인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명태균게이트’의 ‘판도라 상자’인 황금폰이 열리고,
윤석열, 김건희의 육성이 세상에 흘러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명태균의 황금폰에는 공천개입 정황뿐 아니라, 국정농단 의혹, 불법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김상민 검사 공천개입 의혹 등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물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은폐·축소 수사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명태균이 윤석열과 잘 안다는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김건희의 육성 녹취를 용산에 전달하려 했고, 녹음 파일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일보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김건희가 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공개된 “난 조선일보 폐간하는 데 목숨 걸었어” 라는 김건희의
육성은 이에 분개한 김건희의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뤄졌어야 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에도 명태균-윤 대통령 부부의
주요 위법 의혹과 관련하여 6건의 고발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김영선 공천개입 의혹, 불법 대선 캠프 의혹,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사 의뢰 사건,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윤상현 공천개입 의혹 등 입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회피한다면, 이제는 경찰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으로부터 경찰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1. 공천개입
2. 여론조사 조작 의혹
3.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4.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5. 불법 대선캠프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명태균-윤 대통령 부부 의혹 고발 사건을 즉각 수사하십시오.
둘째, 검찰이 미루고 있는 ‘명태균게이트’ 사건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십시오.

경찰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태균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명태균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